

協會人으로서의 마음가짐

어느 조직이든 하여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企業은 利潤을 目的으로 움직이지만 우리協會와 같은 團體는 利潤보다는 하여야 할 일에 目的이 있으며 그 目的을 위하여 業務가 주어졌다. 즉 火保法 第 15 條에

- 1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대한 安全點檢
2. 火災保險에 있어서의 消火設備에 따른 料率割引等級의 査定
3. 火災豫防과 消火施設에 관한 資料의 調査, 研究 및 啓蒙
4. 行政機關, 其他 關係機關에의 火災豫防에 관한 建議
5. 其他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業務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協會의 設立은 그 根本의인 業務方向을 防災에 두고 國家, 社會에서 必要로 하여 目的事業으로 設立하였으며 주어진 業務를 위하여 必要한 財源은 損害保險會社에서 支援토록 했다. 또 이를 着實히 運營하기 위하여 法的 根據로서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을 만들어 國家豫算外의 方法으로 火災豫防活動을 하고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도 함께 하는 社會保障의 性格을 띤 團體로 設立하였다. 枝葉의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協會名의 英文表記에 있어서 “Korean Fire Insurance Association” 이 아닌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을 택하게 된 것도 目的事業의 主體가 防災에 있음을 表現하려는 趣旨에서 意圖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73 年度부터 綜合防災次元에서 豫防과 弘報活動을 遂行하여 國家防災의 一翼을 擔當해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業務開始 10 餘年이 지난 오늘의 狀況은 좀 달라져 있다. 즉 ‘앞으로 어떻게 防災業務를 이끌어 가는 것이 最善의 길인가?’가 未知數라는 點이다. 따라서 이 未知數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닥친 大課題임에 再論의 餘地가 없다. 事實 지나는 年輪만큼이나 發展을 거듭해야 할 業務가 事業費減少 등으로 縮小되어야 하는 實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協會의 發展方向은 協會의 基本 目的事業을 根幹으로 推進되어야 한다는 當然한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는 '82 會計年度에 비하여 '83 會計年度의 總豫算이 6.2%가 줄어 살림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事業費도 8%나 줄었다. 그 結果 點檢事業費는 무려 21.2%나 줄어 들었으므로 目的事業 遂行에 多少 어려운 事業計劃이 樹立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難關을 傍觀할 수만은 없다. 게다가 組織自體의 存立의 基盤을 흔들리게 할 수는 더욱 더 없다.

그러면 對策은 무엇이겠는가? 그 歸結點은 協會人 個體 하나하나의 마음가짐에서부터 始作된다 고 할 수 있다. 卽 各者가 肯定的이고도 進趣의인 思考로써 職務에 임하려는 意識構造의 定着이 先決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姿勢로서 슬기롭게 對處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간 우리가 이룩해 놓은 課業의 脈을 이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外部에서 우리 協會를 보는 視線은 좀더 正方向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各者가 安定된 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